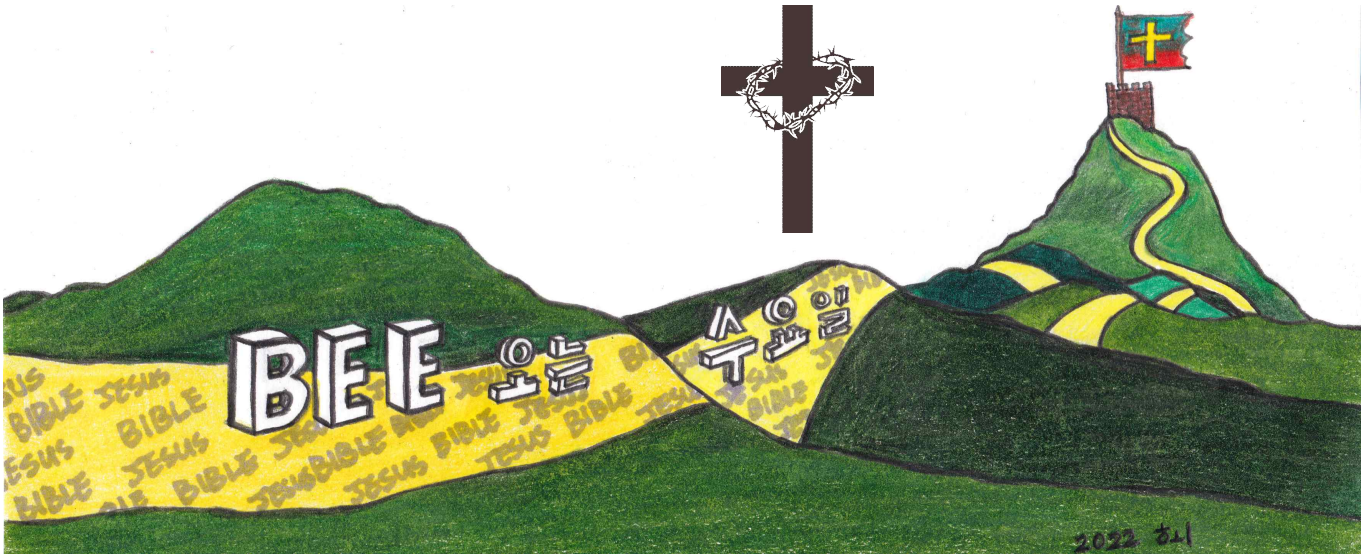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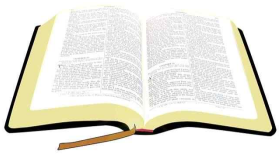



## 열다섯번째 이야기

# 균형을 이루는 삶

[21-2 OBA 후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며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럽고 또 이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노력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내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고 OBA 과정의 마지막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 주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균형을 이룬 삶 부분을 배우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허락된 다양한 영역을 어떤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의 지난 세월이 어떤 균형을 갖춘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수업이었다.

본 과정은 이제 종료되지만 나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세상, 가족, 교회, 일, 정부)에서 균형을 맞춰 대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불필요하게 많은 부분을 일과 세상에 집중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며, 앞으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때로는 잠시 멈추고, 인생이라는 긴 터널에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보고, 그 외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영역에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며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글쓴이 김충성 성도]

모태 신앙으로 10년 차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길 QT는 업무와 동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다. 모든 직장인이 겪는 '월요병'을 이기기 위해 OBA를 시작하였다. 오늘도 세상에 속해 믿음 있는 자로 사는 법을 매일 연습한다. 아내와 아들 다니엘과 함께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

## 은혜가 넘치나니

‘나는 나쁘다. 그러므로 고통스럽다. 이것만을 내가 안다. 그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지난 10개월 동안 계속된 OBA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이다(롬 5:20).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부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OBA를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다.

지난해 8월 남편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게 되었다. 케냐에 있을 때도 OBA를 수강하고 싶었는데 훈련교재를 구하지 못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한국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8월 말, 성령님께서 말씀 공부에 대한 갈급함을 내 속에 주셨다. OBA가 무척 좋다고 익히 들어온 터라, 케냐에서 친하게 교제를 나눠온 선교사님께 급하게 여쭤보았다. 흔쾌히 BEE 본부에 OBA 등록 가능 여부를 여쭤봐 주셔서 기다리기를 하루 정도… 드디어 갈라디아서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제일 마지막 주자로 목요일 저녁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당시 9살, 7살, 5살 아이 셋이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BEE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이다.

2021년 8월 말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처음 갈라디아서 매과를 예습할 때마다 덜덜 떨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인도자님이 책 어디에도 없는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셨기 때문에 모르는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하면 어쩌나 하고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랬기에 예습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숨은 질문을 언제 하실지 몰라 예상 질문을 고민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예습과 과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가 내 속에서 명확해졌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며 성령님께서 내 코끝에 계시고 내 심장박동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자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생겼다.

로마서를 학습할 때는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크기보다 더 큰 죄는 없고 어떠한 큰 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버리신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큰 죄인은 없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좁디좁은 길로 와야 하고 찾기 힘든 분이 아니라 그저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따뜻한 가슴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학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육신하셔서 말씀 그대로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본받아 헌신하며 살아간 것처럼, 그 삶을 학습하는 내내 살아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도자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경건과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진리를 가슴에 담을 수 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생생하게 다가왔다.

선교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BEE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매시간 말씀과 모임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어마무시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좋아요! 선교사님은 다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복습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 거잖아요. 존경합니다.

선교사님! 그냥 말로만 듣던 BEE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에요. 감사해서요! 선교사님께서 저희 곁에 계셔 제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마치고 선교사님께 보낸 메시지 중에서)

할렐루야! OBA를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와 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글쓴이 이지혜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 나쿠루에서 선교사로 산 지 10년이다. 아직 선교사 10살이어서 한참 배워야 할 때이다. BEE를 통해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 쓰시는 성숙한 선교사가 되길 기도한다. 남편과 세 자녀 하늘(10), 나라(8), 누리(6)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실현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 그림 속 His-story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칼 하인리히 블로흐, 1879년, 코펜하겐 힐레뢰드(Hillerød) 크리스티안 4세 왕실교회 기도실)

칼 하인리히 블로흐가 그린 예수님의 생애 23개 연작 중 열한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요4:1-42)', 그림 속의 여인은 몸을 돌리며 허리를 굽혀 점점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점점 믿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당신을 가리키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블로흐는 예수님의 머리 뒤에 후광으로 그분이 거룩한 분임을 표현했고, 배경에는 세 명의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 햇볕을 받으며 들판을 걸어 예수님께로 되돌아오고 있다.

[출처] 성경 미술관, 작성자 말씀과 성화

##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푯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2.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가득 채운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 '찾아온 사랑을 찾아', 제한된 인원(12명)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소 : 서울 연동교회, 일정 : 6월 18일(토) 9:30**
3. 7월 2일(토) 2022년 "All & One"이 진행됩니다. 감사와 축복의 자리에 BEE 가족을 초대합니다!
4. 6월 4일(토), 양재 토요 BEE 기도모임이 2년 반만에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첫 주 토요일은 대면으로 모입니다.